

명품 국민 <전편>

언제부터인가 한국 뉴스를 접하면 거북한 기사들이 있다. 전적으로 내 개인적 열등감일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의 <명품 열풍>이다. 아무리 일등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지만 명품 소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든가, 작년 명품 구입금액이 일본을 앞지르고 아시아 최고라든가, 명품세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거나, 아이나 어른이나 명품 중독증에 빠져 있다는등, 아무튼 나의 뇌구조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전 큰 딸과의 이메일에서도 요즈음 신종어에 <백테크>라는 말이 있단다. 명품백을 닥치는대로 사서 모았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돈이 궁할때 팔아쓴다는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그렇게도 없나?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니 명품가방 한두개 갖고 있다고 잔소리할 소인배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온 국민이 가방이며, 시계, 안경, 구두, 옷, 심지어 얼굴 성형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명품으로 온몸을 감쌀려고 하니 이 백성이 어쩔려고 이러나.

한국이 언제부터 명품국가였나? 한국인이 언제부터 명품 국민이었나? 한국이 세계 최대의 명품 소비국일만큼 잘 사는 나라인가? 한국은 단군조선 이후부터 이날까지 반만년 역사동안 <밥>이 주제였던 나라였다. 5천년 역사속에 최근 20년처럼 잘 먹고 잘 산 세월은 없었다.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었고 밥을 위해서라면 누이를 팔아야 했고 동족끼리도 죽여야 했던 나라였다.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형제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한국이다. 세계가 웃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허영과 사치가 한국인들의 주제가 되고 밥은 부제가 되었다. 오늘날 자랑스런 한국이 되기까지는 한국인 혼자만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핵우산 아래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25 전쟁이후,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감히 짝적거리지도 못한 세월이다. 하지만 세계 힘의 균형은 변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러시아도 푸틴의 당선으로 강성대국을 꿈꾼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20년? 하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유럽은 일본보다 몇배나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다. 아직도 일본은 세계 2위의 달러와 해외채권 보유국이다.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일본이 발행한 채권의 대부분은 일본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구조학상 발 편히 뻗고 잘 수 없는 나라다. 항상 날선잡을 자야 하는데 온 나라가 명품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하니 문제다. 한국은 한국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고 되새김질 해야 한다. 몇권의 역사 소설을 통해 불과 수백년전의 한국 실체를 보자.

김훈씨가 쓴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 그리고 권비영씨의 <덕혜옹주>이다.

<칼의 노래>는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기동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삼도수군통제사의 소임을 원균에게 넘겨 주고 의금부로 압송되었던 이순신이 정유년(1597년) 4월 초하룻날 풀려나 백의종군을 하는 대목에서 시작된다. 원균의 함대가 칠천해전에서 전멸함으로써 삼도수군의 지휘권을 다시 잡은 이순신은 외로이 싸우다가 무술년(1598)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한다. 작가는 그 2년동안의 적군과의 싸움, 아군과의 싸움, 주군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우는 과정에서 사무쳐 있는 칼의 고뇌와 울음을 표현했다. 우리의 기억속에는 이순신이 조선을 살리고 왜국(일본)의 거대 함대를 무찌른 영웅으로만 기억한다. 한국의 일개 속국이었던 일본이 언제부터 그렇게 강건대국이 되었으며, 그동안 조선은 무엇을 했는가. 왜 백성들은 그렇게 못살았고 왜군은 제집 드나듯이 허구한 날 침략질을 해도 조선 조정은 속수무책이었나. 왜 이순신 혼자서 열두척의 작은 어선으로 승리한 것이 국가의 자랑이 되는가? 그가 조선의 영웅이었다면 조선은 정신차리고 변화되었는가, 조선이 부끄럽다. 이 책에서는 그가 한 나라의 신하로서, 장수로서, 한 인간으로서, 백성으로서,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겪는 삶의 무의미와 죽음의 현존 앞에서 고뇌하는 고독한 실존주의자로 그려진다. 이 책의 곳곳에서 조선의 비린내가 나는 것은 여느 때의 한국 역사처럼 왕과 신하들이다. 왕(선조)은 적군이 가까이 몰려오면 도망가면서 울고, 왕의 부하 장군이 적군을 무찔러 승리하면 그가 왕을 헤치려 할까 두려워 운다. 신하들은 오직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함하고 왕을 팔고 충신을 팔고 백성을 팔아먹는다. 북쪽 국경에 사는 백성은 백성대로, 남쪽 국경에 사는 백성은 백성대로 적이 되었다 아군이 되었다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밥이 시키는대로 한다. 왜놈의 군함을 노젓는 백성도

조선의 백성이요, 적선의 배에 갇혀서 꼼짝없이 불 타 죽는 백성도 조선의 백성이요, 왜놈 장수의 몸수발드는 여인들도 조선의 여인이다. 전쟁에 동원되는 보급물자도 조선의 백성들 것이요, 전장의 노획물로 적군의 코를 베거나 귀를 잘라도 그 귀와 코의 국적이 조선인의 것인지, 왜놈의 것인지 불명확하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왕과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모함한다. 왜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에서 갑옷을 입지 않았을까? 그의 죽음은 의도된 자살일까, 타살일까? 누가 그를 죽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는 길고 긴 밤들을 식은 땀을 흘리며 악몽에 뒤척이다가 잠이 깨곤 했는지도 모른다. 불과 500 년전의 우리나라 이야기다. 조선의 백성들은 밥을 위해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다. 조선의 이념은 역사의 허구이고 밥만이 실상이라고 작가는 반복한다. 그 밥을 구걸하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명품 후손>들은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